ISA 판매 현황 분석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ISA가 판매되기 시작한 지 10주가 지나고 금융업권별로 가입형태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은행 고객은 신탁형 가입형태를, 증권회사 고객은 상대적으로 일임형 가입형태를 각각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보험회사는 ISA 판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ISA 판매로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비용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됨.

- 정부는 올 3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하였는데, 동 계좌는 계좌 내 금융상품 이동이 자유롭고 만기 해지 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ISA 도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각 금융업권에서 ISA 가입이 시작되어 약 10주가 지난 현재 업권별로 시장점유율과 가입형태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표 1〉 ISA 가입 현황

(단위: 명, 억 원, 원)

구분	신탁형			일임형			합계		
	가입자 수	금액	인당 금액	가입자 수	금액	인당 금액	가입자 수	금액	인당 금액
은행	1,695,145	10,370	611,747	104,286	944	905,203	1,799,431	11,314	628,754
	90.80%	67.00%	–	74.40%	79.30%	–	89.70%	67.90%	–
증권	170,075	5,088	2,991,621	35,902	247	687,984	205,977	5,334	2,589,610
	9.10%	32.90%	–	25.60%	20.70%	–	10.30%	32.00%	–
보험	991	14	1,412,714	(미취급)			991	14	1,412,714
	0.10%	0.10%	–				0.00%	0.10%	–
합계	1,866,211	15,471	829,006	140,188	1,191	849,573	2,006,399	16,662	830,443

주: ISA가 출시된 3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주간 가입현황임.
자료: 금융투자협회 보도참고자료(2016. 5. 23), "ISA 가입현황" 재구성.

■ 첫째,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은행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증권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가입자 수 기준으로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약 90%로 여타 금융업권을 압도하고 있음.
  - 이는 6,420개[1]에 이르는 은행 지점 내방고객에 대한 마케팅에서의 우위 때문으로 보임.
- 증권회사의 가입자 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10% 수준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약 3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인당 가입금액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 일인당 가입금액은 증권회사가 258.9만 원으로 은행 62.8만 원의 4배 이상인데, 이는 금융투자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이 증권회사 ISA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둘째, 가입형태에서는 본인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할 수 있는 신탁형을 선택한 고객이 금융회사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맡기는 일임형을 선택한 고객보다 많았음.

- 가입자의 93%가 신탁형을 선택했으며, 일임형의 경우는 은행 고객보다 증권사 고객이 선택한 비중이 높았음.
  - 고객들은 증권사에 자산운용의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셋째, 보험회사의 경우 현재 2개사[2]가 ISA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업권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ISA 가입 확대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장점유율은 가입자 수 기준 0.01% 미만, 금액기준 0.1%로 미미한 수준임.
- 이는 ISA 판매로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ISA 판매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임.
  - ISA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탁 판매자격 획득[3] 및 전산 설치비용 투입 등 상당한 고정비용이 지출됨.
  - 반면, ISA 개설을 위해서는 고객이 보험회사의 지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 접근성 측면에서 타 업권에 비해 불리함.

■ 현재 보험회사는 ISA 가입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나, 간접투자 및 자산관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변화에 대비하여 ISA 제공에 관한 내부적 검토가 필요함.

- 향후 고객의 니즈 변화 및 ISA 시장 확대 추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kiri

1) 금융감독원(2015), 『은행경영통계』.
2) 미래에셋생명과 삼성생명.
3) 현재 신탁판매자격을 갖춘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 5개사, 손해보험회사 1개사임.